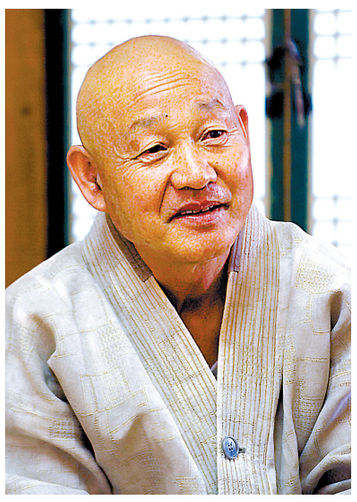
옻칠로 넓힌 우리 민화와 불교

성파스님 통도사 옻칠민화 특별전
통도사 성보박물관 6월 28일까지



‘미륵존’ 등 옻칠민화 1백여 점 전시
‘옻칠 민화’ 우리민화 새 장르 개척
분채 · 석채와는 또 다른 조형세계
“한국 민화, 불교와의 연관성 깊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옻칠민화’라는 우리민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성파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 왼쪽 사진)이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통도사 옻칠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미륵존 등 옻칠민화 100여 점이 전시된다.

옻칠민화는 민화의 한국적인 이미지와 사찰의 옻칠문화를 결합시킨 새로운 장르다.

민화는 분채와 석채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아크릴민화, 디지털민화 등 전통적인 매체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옻칠을 이용한 새로운 장르의 옻칠민화는 칠화(漆畵)에 민화적 이미지를 올린 그림으로, 종이나 비단의 분채나 석채와는 또 다른 조형세계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후한 느낌과 촉감적 질감 등이 다른 민화와는 다른 느낌을 보여준다. 옻칠민화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 물질을 화폭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옻칠은 다른 물질과의 결합성이 뛰어나 복합재료로 형성되는 입체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전통민화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스케일을 키우고 표현 매체를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민화는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생활공간의 장식을 위해 그린 그림이거나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 서민층에서 유행했으며, 이규경(李圭景 · 1788~1865)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이를 속화(俗畵)라 하고, 여염집의 병풍 · 족자 · 벽에 붙인다고 했다.

성파 스님의 지론에 따르면 우리 민화는 불교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화는 19세기 정조 사후 사찰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면서 시작됐다. 설 자리를 잃은 불모들이 절을 나와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 민화의 시작이다. 그 후 민화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찰의 불화 제작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민간에서 채색 안료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사찰뿐이고, 민화의 주요 기능인 액막이와 길상의 기능이 불교의 축원 · 기복과 맥락을 같이했던 점, 그리고 사찰의 집단노동체제가 전국에서 일어난 민화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그 이유다.

전통사찰 전각에서 민화를 볼 수 있는데 통도사에도 민화가 그려진 전각이 많다. 특히 명부전의 경우 ‘사찰민화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전각 안팎의 벽화에 불화보다 민화가 더 많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시작된 민화의 붐은 해장보각, 용화전, 응진전 등으로 옮겨가며 벽화로 조성됐다. 이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걸려 나타난 현상이다. 통도사와 같은 대가람에서 민화를 대폭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조선 말기 불교와 민화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파 스님 作, 미륵존

성파 스님은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9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제5 · 8 · 9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통도사 서운암에 주석하며 28년간 민족통일의 원력을 담은 도자삼천불과 16만도자대장경을 조성했다. 옻칠불화, 민화, 서예,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2018년 희귀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통도사 방장 추대법회를 대신했다. 1983년 옻을 이용한 개인전을 처음 연 이후 국내외에서 전통 옻과 불교미술을 접목한 전시를 10여 차례 열었으며, 한국 고유의 전통미술을 계승한 민화, 특히 옻칠민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수행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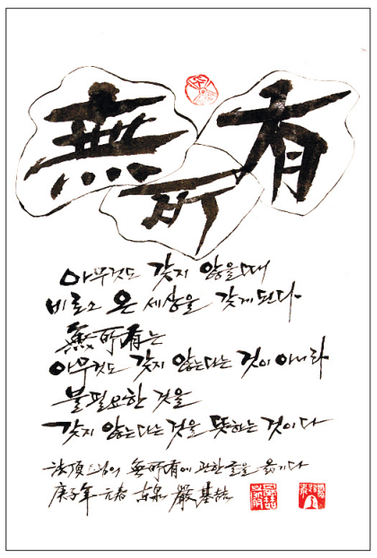
법정 스님 법문 작품으로 만난다

(사)맑고향기롭게 · 길상사,
5월 17일~6월 7일 전시회
엄기철 작가 작품 80여 점

무소유 가르침으로 세상을 맑힌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법문들이 서예 작품으로 대중과 만난다.

(사)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와 길상사(주지 덕일)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 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전후한 5월27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동천 엄기철 서예가가 법정 스님의 명문장을 발췌해 쓴 40여 점과 대승불교 근본경전 〈금강경〉의 경구 및 게송 20여 점, 반야심경 등 일반 작품 20여 점이 선보인다.



엄기철 作, 법정 스님 글 ‘무소유’

〈금강경〉 전문작가이자 추사체 연구가로 활동하는 엄기철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시도한 목간체 작품 등 여러 서체의 〈금강경〉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12폭 족자에 담긴 11m규모의 추사체 작품을 비롯해, 한글로 풀어쓴 〈금강반야바라밀경〉 판본체(고체) 작품 등이 주목된다.

엄 서예가는 “평소 법정 스님의 책을 자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과 같이 집착을 끊어내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며 “법정 스님 가르침과 경전 구절이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지혜와 용기를 주는 금과옥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맑고향기롭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말씀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 〈금강경〉을 관람하며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큰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문화 행사로 ‘무소유 낭독 음악회’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 좌담’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 및 연기했다. 올 하반기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과 ‘제4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작품 공모

10월 7~8일 접수, 불화 · 조각 등 4개 부문
11월 25~30일 동덕아트갤러리 시상 · 전시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이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난해까지 포함된 서예 · 문인화 부문을 제외한 불화(전통 · 현대), 조각, 공예, 민화 4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작품은 10월 7~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요강과 출품 원서는 6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화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표구된 완성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조각은 높이 250㎝ 미만, 가로×세로 300㎝ 이하, 무게 500kg 미만이며, 조립한 완성품을 제출해야 한다. 민화는 높이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액자(유리 액자 제외) 제작 후 접수해야 한다.

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 원과 상장 · 상패, 최우수상(4명)에는 상금 각 300만 원과 상장 · 상패, 우수상(4명)에는 상금 각 100만 원과 상장 · 상패, 장려상(4명)에는 상금 각 30만 원과 상장 · 상패, 특선에는 상장 · 상품, 입선에는 상장, 특별상에는 상장 및 기념패를 수여한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 전시회는 11월 25~30일 서울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중 열린다.

박재완 기자

연등 및 불교용품들은 가까운 유명불교상점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가야기획

봉축현수막



※ 현수막의 색상은 본 카다로그의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사현수막 제작
- 지하철 현수막
- 세로거치형 현수막
- 장엄번(만장기)
- 어깨띠 등 전문출력



광명연등



사이즈 3종
(대, 중, 소)

종이주름등



비닐만월등

색상 : 노랑, 초록, 빨강, 진분홍, 파랑



※ 연등 및 만월등 사찰 독판 만월등 접수 받습니다.

PVC 청사초롱등



봉축리본



집게형, 일반형

종이연잎연등



- 색상 : 진분홍, 연분홍, 노랑, 빨강, 백색
- 사이즈 : 10.5cm, 8cm

황금등



- 사이즈 : 20cm
13cm
10.5cm
8cm

가야연등



- 바람칼라연등 사이즈 : 20cm, 13cm, 10.5cm, 8cm, 6cm
- 자비연등 사이즈 : 13cm, 10.5cm, 8cm • 색상 : 진분홍, 보라, 연분홍, 주황, 적색